

‘고향’에 대한 환멸

- ‘통일일보’ 시점에서 본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 -

BENJAMIN WOLFS (고베대학)

1. 들어가며

‘내 집보다 좋은 곳은 없다’라는 일본 속담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집(Home)이란 편히 설 수 있는 장소이다. 이 장소라는 것은 특정 사람들에게 사회적, 심리적, 그리고 감정적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에서 안정된 기준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Douglas 1991 : 298; Easthope 2004 : 135].

그러나 지금, 집의 안정적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과거에 유례없는 수준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의 개념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세계 어딘가에서 있을 곳(Place of Belonging) 혹은 편히 설 수 있는(Feeling at Home) 곳을 찾는 걸 의미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이민자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Samanani & Lenhard 2019 : 8-9]. 그러나 이민자가 이러한 있을 곳을 획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초기 디아스포라(Diaspora) 연구에서는 디아스포라에게 있어 이 집이 새로운 호스트 사회가 아니라 그들의 조국이라 여겨졌다[Safran 1991 : 83-84]. 그러나 최근 연구는 많은 디아스포라와 그들 조국 사이의 관계가 과거에 논했던 것처럼 견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Tsuda & Song 2019 : 29-30]. 이 변화의 한 요인은 디아스포라가 그들 조국의 정치 제도에 그다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보카그니(2017)가 지적한 것처럼 이민자가 어딘가에서 편히 설 수 있는지 여부는 누군가에게 그 장소에 소속될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에 영향받기 때문이다[Boccagni 2017 : 88-89].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디아스포라와 집(고향)이라는 두 가지 분석 개념을 도입하여 소수 민족 집단(ethnic minority)과 그들 조국 사이의 관계 변화를 관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제일 한인 신문인 ‘통일일보’가 한반도의 ‘햇볕정책’이라는 큰 정치적 변동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해석한다.

2. 제일 한인 세대의 세대교체

1945년 8월 15일, 포츠담 선언으로 일본은 무조건 항복했다. 이때 약 200만 명의 한인이 일본에 체류 중이었다. 2차 세계대전 후 수년 이내에 절반 이상이 귀국했으나 약 60만 명의 한인은 다양한 이유로 일본에 남았다.

2차 세계대전 이전, 혹은 전쟁 직후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간 한인은 일반적으로 제1세대라 불리고 있다. 한반도에서 태어나 자란 제1세대 중에는 일본에서의 거주를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가까운 미래에 통일된 조국으로 돌아갈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았다. 다시 말해 제1세대에게는 조국 중심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Lie 2008 : 44-45].

1970년대가 되자 제일 한인 사회에 세대교체가 일어난다. 제2세대 이후의 제일 한인 대다수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한반도에 대한 태도가 변해 간다. 이 세대는 조국 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일본에서의 영주 가능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Lie 2008 : 114-115]. 그리고 그들에 의해 국민연금과 영주권 등 일본에서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제일 한인들의 운동이 시작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가며 제일 한인 사회는 전환기를 맞았다. 당시 일본의 지방 참

정권 취득이 많은 재일 한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국제고려학회 일본지부 『재일 코리안 사전』 편집위원회 2010 : 211-212]. 이와 동시에 재일 한인 사회에서는 일본인과 결혼하는 사람, 일본 국적 취득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재일동포사회」 <https://www.mindan.org/syakai.php> 2021년 7월 16일 열람). 다시 말해 1970년대 이후, 많은 재일 한인은 한반도와 괴리되어 일본에서의 생활을 중시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통일일보’에 따르면 이 현상은 재일 한인 사회에서 ‘민족성의 위기’라 불리기도 한다(『통일일보』 「조선총련, 진정 발밑을 바라보며」 1998년 6월 2일).

이러한 세대교체는 재일 한인 언론 내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이후 재일 한인 언론의 내용으로는 점차 남북문제 등 정치적인 테마가 줄어들고 생활에 필요한 토픽이 많이 다루어지게 되었다[강 2011 : 64-65].

3. ‘통일일보’에서 다뤄진 ‘햇볕정책’

3.1 ‘통일일보’의 개요

‘통일일보’란 재일본대한민국민단(在日本大韓民國民團)¹⁾ 계열 재일 한인을 대상으로 일본어로 간행되는 보수 성향 신문이다. 이 신문은 이영근이라는 한국 정치운동가의 도일(渡日)을 계기로 1959년에 창간되었고 본사는 도쿄에 있다. 이 신문은 당초 ‘평화통일론’을 제창하며 한국의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과 북한 양측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미즈노·문 2015 : 135]. 1970년대에 접어들자 양 정권을 비판하는 자세가 무너지다[국제고려학회 일본지부 『재일 코리안 사전』 편집위원회 2010 : 316]. 즉 박정희 정권을 지지하는 한편 북한 체제는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었다.

전술한 대로 1970년대에 재일 한인 사회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문은 이러한 조류를 따르지 않고 남북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국 중심주의적 태도를 유지했다. 그 후 1990년대에도 ‘통일일보’는 한국을 ‘조국’으로 간주하며 일본을 ‘거주국’으로 부르고 기본적으로는 한국 정부를 지지했다.

그러나 한국의 김대중 정권이 북한에 대해 ‘햇볕정책’을 채택한 시기에 이러한 ‘통일일보’와 한국 정부 간에 불일치가 생겨났다.

3.2 ‘통일일보’와 한국 정부의 어긋남

‘햇볕정책’이란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 정권이 북한에 대해 취한 관여 정책이다. 김대중 정권은 경제 원조와 남북 대화 등을 통해 김정일 정권의 변화를 유발하고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꾀했다.

당시 ‘통일일보’는 사설에서 ‘햇볕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남북 공동 발표문과 시기를 맞춰 김대중 대통령은 북측의 약속 위반을 벌할 생각 없이 오로지 ‘대화’를 강조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이 옳은 해결 방법이라 하고 있다. 진정 한심한 일이다.” (『통일일보』 「김대중 정권은 국민을 어디로 끌어들이는가」 2002년 11월 6일)

그들이 이렇게 비판적인 논조였던 것은 ‘통일일보’가 ‘햇볕정책’을 위협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정책이 실시된 동안 일본 국내에서 북한 관련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 ‘통일일보’의 사설에서는 특히 세 가지 사건이 거론되었다. 이들 사건은 북한이 1998년 8월 31

1)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란 한국 국적을 가진 재일 한인을 위한 사설 단체이다.

일에 일본 서쪽 바다를 향해 대포동이라는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사건, 노토반도 앞 바다 괴선박 사건²⁾ 및 ‘일본인 납치문제’³⁾이다.

북한 관련 이들 사건으로 인해 재일 한인이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고 ‘통일일보’는 보도하고 있다. 즉 한일 간 긴장이 높아지면 재일 한인의 일본 생활에도 그림자가 드리우게 된다. 이러한 경위로 ‘통일일보’의 ‘햇볕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통일일보’는 한국의 대북정책 변경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재일 한인을 포함한 한국의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이 없었기 때문에 재일 한인은 한국 정부가 취하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이에 관해 ‘통일일보’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본국의 근본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는 재외 동포의 생활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권은 재외 동포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통일일보』 「재외동포정책의 전환을」 2002년 12월 4일)

실제로 200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시기에 ‘햇볕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통일일보’의 한국 참정권 요구가 높아졌다. 그러나 당시 한국 정부는 재일 한인 등 재외 국민의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는 재일 한인 등 재외국민이 납세와 징병이라는 의무를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정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통일일보’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징병의 의무가 없는 여성과 납세를 면제받는 장애인도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을 부정 받지 않는다는 상식을 무시한 배외감정이라 할 수 있다. 기형적인 재외동포 특례법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인가. 오랜 기간 차별을 겪어온 우리 재일 한국인으로서 그런 조국을 보고 싶지 않다.”(『통일일보』 「국제화 미국의 재외 동포 특례법」 1999년 8월 24일)

이에 더해 ‘통일일보’에 따르면 김대중은 취임 연설에서 한국의 재외 국민에게 거주국 국적 취득을 권했다(『통일일보』 「재일한국인정책 확인 회의를」 1998년 3월 10일). 이 신문은 조국으로부터 참정권 부여를 부정당했으며, 또한 김대중의 연설로 인해 조국으로부터 차별과 소외감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사례에서 ‘통일일보’와 한국 정부 간의 관계는 전자로부터의 일방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고찰과 결론

1990년대 후반 이후에 재일 한인 사회는 전환기를 맞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당시 재일 한국인 중에는 일본인과 결혼하는 사람,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의 수가 급증해 한반도로부터 괴리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일보’라는 재일 한인 대상 신문은 한국과의 견고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햇볕정책’이 실시된 때에 이 ‘통일일보’는 ‘고향’으로 간주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환멸을 느끼게 되었다.

‘통일일보’ 입장에서는 ‘햇볕정책’이 재일 한인의 일상생활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 정책의 지속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재일 한인 등 재외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없어서 한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그리고 당시의 한국 정부는 그들에

2) 이는 1999년 3월 23일 북한 공작선이 일본 영해에 침입해 일본 자위함에 의해 침몰당한 사건이다.

3) 2002년 9월 평양에서 북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을 때 북한 측은 이 사건에 대한 관여를 인정했다.

게 참정권을 부여할 자세도 표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통일일보’는 그들의 조국으로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와 동시에 조국에게 차별받은 그들은 ‘거주국’으로 간주하던 일본에서도 지방 참정권을 포함한 완전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차별의 대상이 되는 일이 많다.

이런 의미에서 당시의 ‘통일일보’에는 ‘Home’에 해당하는 장소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 그들이 처한 상황을 ‘홈리스(Homeless)’로 보고 해당 신문을 ‘홈리스 미디어(Homeless Media)’로 비유했다.

참고문헌

- Boccagni, P. 2017. *Migration and the Search for Home: Mapping Domestic Space in Migrants' Everyday Lives*. Palgrave Macmillan US.
- Douglas, M. 1991. The Idea of a Home: A Kind of Space. *Social Research* 58(1): 297-307.
- Easthope, H. 2004. A place called home. *Housing, Theory and Society* 21(3): 128-138.
- Lie, J. 2008. *Zainichi (Koreans in Japan): Diasporic Nationalism and Postcolonial Identit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afran, W. 1991. Diasporas in Modern Societies: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Diaspora* 1(1):83-99.
- Samanani, F. & J. Lenhard. 2019. House and Home. In F. Stein, S. Lazar, M. Candea, H. Diemberger, J. Robbins, A. Sanchez & R. Stasch (eds)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Anthropology*. <http://doi.org/10.29164/19home>.
- Tsuda, T. & C. Song. (eds) 2019. *Diasporic Returns to the Ethnic Homeland: The Korean Diaspora in Comparative Perspective*.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姜誠 2011 「在日コリアンのエスニック・メディアの状況」 『学術の動向』 16(1):64-67.
- 水野直樹・文京洙 2015 『在日朝鮮人 歴史と現在』 岩波新書.
- 国際高麗学会日本支部 『在日コリアン辞典』 編集委員会 2010 『在日コリアン辞典』 明石書店.

(번역담당자:이지윤)